

2025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답

1	③	2	③	3	④	4	④	5	⑤
6	①	7	④	8	①	9	③	10	④
11	⑤	12	③	13	③	14	①	15	②
16	③	17	④	18	③	19	①	20	⑤
21	①	22	②	23	①	24	④	25	②
26	③	27	⑤	28	⑤	29	①	30	①
31	②	32	②	33	⑤	34	④	35	④
36	⑤	37	⑤	38	②	39	①	40	③
41	②	42	②	43	②	44	④	45	⑤

해설

[1~3] 화법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한글과 관련된 책을 읽은 후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알려 주고 싶었다며, 발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1문단).

[오답풀이] ① ‘손가락 세 개를 펴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1문단). 하지만 이 표현이 청중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지는 않는다.

- ② 발표 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받고 있지 않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지 않는다.
- ⑤ 중심 화제를 일상적 소재에 빗대지 않는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㉔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운용법이 우수하다는 내용이 실린 논문 자료이다. 하지만 자료가 제시된 상황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 [오답풀이]** ① ㉔은 말과 글자의 의미를 혼동하여 쓴 신문 기사 표제로, 첫 번째로 제시된 자료에 해당한다.
- ② ㉔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의 인정을 받은 기록물임을 알려 주는 누리집 게시물로, 두 번째로 제시된 자료에 해당한다.
- ④ ㉔은 한글로 모든 언어의 발음을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국제음성기호 목록으로, 네 번째로 제시된 자료에 해당한다.
- ⑤ ㉔은 다른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동영상으로, 다섯 번째로 제시된 자료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분석하기

‘학생 1’은 ‘한글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어.’라고, ‘학생 3’은 ‘이번 발표로 말과 글자의 의미를 구분하고 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유익했어.’라고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1’과 ‘학생 3’ 모두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지 않는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다.
- ③ ‘학생 3’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지 않는다.
- ⑤ ‘학생 2’는 ‘우리나라 기록물 중에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이 더 있는지 조사해 봐야겠어.’라며 추

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3’은 ‘세 가지 오후 이외에 또 다른 오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어.’라며 궁금증을 가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활동을 계획하지는 않는다.

[4~7] 화법, 작문

4. [출제의도] 입론과 필수 쟁점 이해하기

[D]에서 ‘반대 1’은 상대방이 정의한 용어를 재정의하지 않고, 찬성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지도 않는다.

[오답풀이] ⑤ [C]에서 ‘찬성 1’은 생태법인의 도입이 생태계를 보호하여 생태계 파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음을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대 1’은 생태법인의 도입은 오히려 국가, 기업 등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반대 신문 이해하기

㉔은 인정할 만한 권위가 있는지, 자료의 출처가 명확한지를 판단하는 ‘신뢰성’과 관련이 없다.

- [오답풀이]** ① ㉔은 자료의 출처를 물어 ‘신뢰성’을 판단하고 있다.
- ② ㉔은 사례인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물어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 ③ ㉔은 제주남방큰돌고래와 다른 종을 바라보는 시각의 ‘공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 ④ ㉔은 상대방이 언급한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점을 물어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제목 작성하기

‘생태법인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찬반 입장이 모두 드러난다. 또한 돌고래를 인간에게 묻는 존재로 표현해 의인법을 활용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② 반대 측 입장만 확인할 수 있고, 의인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 ③, ⑤ 찬성 측 입장과 의인법은 확인할 수 있지만, 반대 측 입장을 확인할 수 없다.
- ④ 찬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의인법은 확인할 수 없다.

7. [출제의도] 내용 조직하기

2문단에 찬반 양측의 주장에 대해 옹호하는 학생의 말이 인용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새로운 근거를 들지는 않는다.

- [오답풀이]** ① 찬성 측의 입론을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 ② 반대 측이 입론에서 밝힌, 생태법인이 인정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요약하고 있다.
- ③ 찬반 양측에서 언급하지 않은 도롱뇽, 산양과 같은 사례를 들어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 ⑤ 찬반 양측의 관점을 간추리면서, 사회적 소통과 합의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해결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8~10]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

㉠ 1문단에서 ‘캣코노미’라는 용어를 들로 나누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2문단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 [오답풀이]** ㉢ 반려동물 양육 포기 실태를 나타내는 객관적 수치는 나타나 있지 않다.
- ㉣ 반려동물 양육 비용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A]에서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풀이]** ① [A]에 없던 철학자 피터 싱어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 ② [A]에 없는 ‘양육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구절을 추가하여 글쓰이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의 첫 문장에 사용된 ‘캣코노미의 성장’이 두 번째 문장에도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것’이라는 지시 표현을 대신 사용하고 있다.
- ⑤ [A]의 첫 문장에서 주어인 ‘캣코노미의 성장’과 호응하도록, ‘있다’를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로 수정하고 있다.

10.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ㄱ-1’은 캣코노미의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ㄴ’은 캣펫족의 실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두 자료의 내용으로는 양육 포기를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없다.

- [오답풀이]** ① ‘ㄱ-1’에서 캣코노미의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인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를 뒷받침할 수 있다.
- ② ‘ㄴ’은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양육자의 인터뷰이며, 1문단의 ‘반려동물을 소유물이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하는 캣펫족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 ③ ‘ㄷ’에는 순수 양육비와 의료비의 실태와 그 증가 추세가 제시되어 있어, 3문단에 언급된 ‘관련 용품이나 서비스의 고급화 경향’과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상승한 양육 비용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수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⑤ ‘ㄱ-2’에서 양육자들이 양육 포기를 고려하는 원인 중 2위(22.2%)가 ‘예산보다 많은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ㄷ’에서 양육 비용의 실태와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3문단에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양육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11~15] 문법

11. [출제의도] 자음군 단순화 이해하기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일어나지 않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일어난다(3, 4문단).

- [오답풀이]** ①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끝에서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다는 음절 구조 제약에 의해 일어난다(1문단).
- ② ‘ㅎ’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하면 ‘ㅎ’ 탈락이 일어난다(6문단).
- ③ 겹받침 뒤에 아무런 형태소가 오지 않는 경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2문단).
- ④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때, 같은 자음군이라도 탈락하는 자음의 위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5문단).

12.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과정 이해하기

‘뉘다[닐따]’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뒤 자음이 탈락한 것으로, ㉠에 해당한다. ‘금[궁]’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앞 자음이 탈락한 후 비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에 해당한다.

- [오답풀이]** ‘뉘다[닐따]’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고, 된소리 ‘ㄷ’이 연음된다. ‘참삼[참삼]’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앞 자음이 탈락하고, 다른 음운 변동은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

13.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 ㉔의 '누보며'는 현대어 '누우며'에 해당하는 것으로,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수 어휘가 아니다.
[오답풀이] ① ㉔은 현대어 '출가하시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어말 어미 '-사-'를 통해 주체인 '善慧(선혜)'를 높이고 있다.
 ② ㉔은 현대어 '꿈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두자음군 '시'를 사용하고 있다.
 ④ ㉔은 현대어 '달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언 '들'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여 모음 조화가 지켜진 것이다.
 ⑤ ㉔은 현대어 '이르소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어의 첫머리에 'ㄴ'이 나타났으므로, 무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14. [출제의도] 관형사질의 시간 표현 이해하기

- 관형사질은 '언니가 만든', '은사이신'이다. '언니가 만든'은 과거 시제를, '은사이신'은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관형사질(밝은)만 나타나 있다.
 ③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관형사질(내가 책을 사던)만 나타나 있다.
 ④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관형사질(집에 들어온, 오후가 한, 내가 자주 들던)이 세 번 나타나 있다.
 ⑤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관형사질(최근 출간된)과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관형사질(김택할)이 나타나 있다.

15. [출제의도] 띄어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 '주고'와 '값다'는 모두 본용언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오답풀이] ① ㉔은 본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이어진 경우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③ ㉔의 앞말 '덤벼들어'는 합성 용언이므로 보조 용언 '보아라'와 띄어 써야 한다.
 ④ ㉔은 앞말 '읽어'에 조사 '도'가 붙은 경우이므로 보조 용언 '보았으나'와 띄어 써야 한다.
 ⑤ ㉔은 보조 용언 '듯하다'에서 의존명사 '듯' 뒤에 조사 '도'가 붙은 경우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6~20] 독서(과학)

<출전> 약물의 체내 이동(제구성)

개관: 이 글은 약물이 체내에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약물은 체내에서 흡수 단계, 분포 단계, 제거 단계를 거치면서 이동한다. 흡수 단계는 체내에 투입된 약물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단계이고, 분포 단계는 약물이 혈액을 통해 체내 여러 조직에 분포하는 단계이며, 제거 단계는 약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단계이다. 이때 생체이용률, 분포 용적, 청소율을 활용하여 약물의 적정량이나 투여 간격을 결정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 농도 구배가 작은 경우에도 약물은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한다(2문단).
[오답풀이] ① 흡수 단계에서 체내에 투입되어 혈액에 도달한 약물은, 분포 단계에서 혈액을 통해 체내 여러 조직에 분포한다(3, 4문단).
 ② 경구로 투여되는 약물은 소화통과효과 때문에 항상 투여량의 일부만 혈액에 도달한다(3문단).
 ④ 체내에 있는 조직은 시료를 직접 채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장 약물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6문단).
 ⑤ 액체제의 약물은 정제제의 약물과 달리 용매에 녹아 있다(2문단).

17. [출제의도] 세부 정보 비교하기

㉔은 간이나 장 등에서 대사를 거친 상태이다.

- [오답풀이]** ① ㉔은 약물이므로 세포막을 통과한다.
 ② ㉔은 약물이므로 불활성 성분을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 않는다. 불활성 성분을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것은 약제이다.
 ③ 약제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것은 활성 성분인 ㉔이다.
 ⑤ ㉔은 목표 조직에서 약효를 낸다.

18. [출제의도] 세부 정보 추론하기

생체이용률이 낮을수록 혈액에 도달하는 약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생체이용률이 낮은 약물은 생체이용률이 높은 약물보다 투여량이 많을(ㄱ) 것이다. 청소율이 높을수록 약물이 제거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약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짧을(ㄴ) 것이다. 그래서 청소율이 높은 약물은 청소율이 낮은 약물보다 투여 간격이 짧을(ㄷ) 것이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 ㉔의 분포 용적은 1L(12mg × 0.25 ÷ 3mg/L)이고, ⑥의 분포 용적은 9L(12mg × 0.75 ÷ 1mg/L)이다. ⑥의 분포 용적이 더 크므로, ⑥는 ㉔에 비해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은 약물일 것이다(4문단).
[오답풀이] ② ㉔은 경구 투여형이고, ㉔은 주사형이다. ㉔은 ㉔과 달리 체내 흡수 단계에서 소화통과효과가 발생할 것이다(3문단).
 ③ ⑥의 분포 용적은 9L이고, ㉔의 분포 용적은 6L(12mg × 1 ÷ 2mg/L)이다. ⑥의 분포 용적이 더 크므로, ⑥는 ㉔에 비해 체내의 더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을 것이다(4문단).
 ④ ㉔의 불활성 성분 일부를 보면, 복용의 편의를 돕는 성분인 당류를 포함하고 있다. ㉔은 주사형 액체제이므로 복용의 편의를 돕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다(2문단).
 ⑤ ㉔은 약물을 녹이기 위한 불활성 성분으로 정제수가 포함된 약제이고, ㉔은 약물을 녹이기 위한 불활성 성분으로 생리식염수가 포함된 약제이다(2문단).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 혈액에서 목표 조직으로 빠르게 분포되는 약물은 느리게 분포되는 약물보다 약물의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㉔과 ㉔의 간격이 더 좁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약물이 목표 조직 외의 다른 조직에 더 분포한다면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가 충분히 높지 않을 것이므로, ㉔에서 약효의 최대치는 낮아질 것이다.
 ② ㉔에서는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가 혈장 약물 농도보다 더 높음을, ㉔에서는 혈장 약물 농도가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보다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산 계수가 작을수록 물질의 확산 속도는 느리다. 동일한 약물로 만든 정제제는 액체제보다 확산 계수가 더 작기 때문에 ㉔과 ㉔의 간격이 더 넓을 것이다.
 ④ 확산 계수가 큰 약물은 분포의 속도가 빠르므로 확산 계수가 작은 약물보다 ㉔과 ㉔의 간격이 더 좁을 것이다.

[21~25] 문학(고전 갈래 복합)

<출전> (가) 정훈, '수남방용가' / (나) 김이의, '금강영언록' / (다) 홍성민, '축전폐일설'

개관: (가)는 자연에 묻혀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한 은일 가사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 경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그 속에서 안빈낙도하고자 하는 작가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작가가 유배되었을 때 지은 연시조로, 유배에서의 경험과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연군과 충절,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유배에서의 일상 등이 잘 드러나 있다. (다)는 '축전폐일(축나라의 개가 해를 보고 짓다)'이

라는 고사를 통해 율바름을 배척하는 당대의 부정적인 세태를 비판한 고전 수필이다. 선이 일상적인 것이 되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군왕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2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 (가)의 '무우대에서 바람 끈을 이보다 더하겠는가', '산수의 즐거움을 나뉘어 누리 아는가', '케으른 이 몸이 언제나 한가할까', (나)의 '늙은이 예상 일을 내라고 면할소냐', (다)의 '놀라니 어찌 짓지 않았는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와 (나)에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에는 감탄사 '오호라'가 사용되고 있지만,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가)~(다)는 모두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가)~(다)는 모두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현실에 대한 근심은 나타나 있지만, 비판의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22.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 화자는 아이들에게 농사일에 대한 고단함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산새는 봄을 맞아 노래하며', '꽃은 비온 후에 웃음을 머금었다'에서,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반가움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봉우리에 올라앉아 채미가'를 부르고, '가슴속이 상쾌하니'에서, 노동 후의 상쾌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시 짓고', '취파람 불며', '산수에서 소일'하는 즐거움을 자신만이 안다고 말하는 것에서, 화자의 즐거움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사계절 경치가 다 제각각 재촉'하니 '언제나 한가할까'에서, 사계절의 경치를 모두 누리길 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 (가)는 '달'을 맞으며 맑은 경치를 혼자 즐긴다고 말하므로, '달'은 화자에게 흥취를 느끼게 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다)의 '해'는 글쓴이에게 흥취를 느끼게 하는 소재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나)의 '두루미'는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이다.
 ③ (가)의 '흰 눈'은 화자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을 가리고 있지 않다.
 ④ (가)의 '취파람'에는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지 않다.
 ⑤ (나)의 '바다'와 (다)의 '하늘'은 탈속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 '조개 등'만큼 좁은 섬을 '세상의 넓은 곳'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섬으로 유배된 화자가 자신의 현재 처지를 인식하는 것으로, 백성을 돌봐야 하는 유학자의 사명감을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난하게 살아가도 '서러운 줄 모'른다고 말하는 것에서, 자기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익은 '새 술'을 마시고 '미끼 없는 낚시대'로 낚시하며 소일하는 것에서, 자연 속에서 유희자적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죄명'을 지고 가지 울타리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것에서, 유배지에서 지내는 화자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가)는 '임금은 정사를 어찌 돌보시는가'에서, (나)는 '임금이 자식같이 보시던 은덕은 더욱 망극하여라'에서, 모두 유교적 충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보기>의 (다)는 악을 일상으로 여기는 세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다고 하였으므로, 익숙하지 않은 악이 아니라 익숙해진 악을 따르는 것에 대한 우려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축나라의 기후가 항상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다면 개는 해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선을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해를 보고 짓는' 축나라 '개'는 선을 끼리는 사람의 모습을 빗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한다면 '올바름을 보고 짓어 대는 것에 대한 걱정이 함께 끊어질 것'이라고 했으므로, 이는 사람들이 선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④ 사람들이 올바름을 보고 짓는 습성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 모두 군왕의 마음이 겸에 달려있다고 했으므로, 군왕은 그릇된 세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⑤ 신하가 글을 짓는 이유가 '올바름을 보고 짓는 개들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이 세상'은 생소하다는 이유로 선을 배척하는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26~30] 독서(사화)

<출전> 표현대리제도(재구성)

개관: 이 글은 대리제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표현대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무권대리라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발생하지 않는데, 이로 인해 상대방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를 보게 된다. 민법에서는 대리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것에 본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경우에 성립한다.

26.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무권대리행위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는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2문단).

②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한 것에 본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때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3문단).

④ 민법에서 표현대리는 대리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3문단).

⑤ 대리제도에서 대리인을 내세워 체결한 계약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1문단).

2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특정인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지만 기본대리권이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다(4문단).

[오답풀이] ①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원칙적으로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발생하지 않는다(2문단).

②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대리권의 외관이 정리지 않은 것에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4문단).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진하면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기므로, 상대방은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했을 때 기대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5문단).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3문단).

2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표현대리는 대리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3문단).

2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추진하면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기므로(5문단), '갑'은 '을'이 '갑'을 대리하여 빌린 3천만 원을 ○○은행에 갈아야 한다.

[오답풀이]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해당 대리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성립한다(4문단).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은행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은행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를 한 경험이 있어야 성립하므로(4문단), '정'과 거래한 적이 있는 '무'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3문단), '정'이 '병'을 대리하여 '무'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무'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그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을'은 '갑'을 대리하여 2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3천만 원을 빌린 무권대리행위를, '정'은 '병'의 죽음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무권대리행위를 하였다(4문단).

30.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㉞는 '값, 기운, 수준, 형세 따위가 낮아지거나 내려가다.'라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② '병이나 습관 따위가 없어지다.'라는 의미이다.

③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다.'라는 의미이다.

④ '어떤 상태나 처지에 빠지다.'라는 의미이다.

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의미이다.

[31~34] 문학(현대 소설)

<출전> 손홍규, 「이슬람 정복집」

개관: 이 작품은 어린 '나'가 터킨인 하산 아저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와 가족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고아원을 전전하던 '나'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한국에 정착하게 된 터킨인 하산 아저씨는 모두 삶의 굴곡을 보여 주는 흉터를 지닌 채 세상의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이런 상처를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 간다.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A]에는 '지도'를 바탕으로 상상한 장면을 나열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는 인물의 구체적 외양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A]에는 내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에는 인물의 직접 경험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A]에는 인물의 회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3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하산 아저씨는 금식 기간에 정육점에 나갔으나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돌아왔다.

[오답풀이] ①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③ 하산 아저씨는 나를 난폭하게 만든 건 나 자신이라고 말했다.

④ 나는 하산 아저씨에게 지도를 보여 주기 위해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⑤ 내가 스크랩한 얼굴을 재배열한 것은 얼굴로 이루어진 세계지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3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완성된 지도'를 통해 나와 하산 아저씨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게 된다.

34.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내가 하산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러 기다린 것은 하산 아저씨가 나에게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주기를 기다린 것으로, 하산 아저씨가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길 바라는 나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35~37] 문학(현대 시)

<출전> (가) 백석, 「선우사」 / (나) 송환호, 「고래의 꿈」

개관: (가)는 '흰뱀'과 '가자미'를 의인화하여 이들에 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가난한 현실에서도 순수한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는 고래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희망에 대한 불신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3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흰뱀'에서, (나)는 '하얗게'에서 흰색과 관련된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물답이 소리'와 '소리가 소리', (나)는 '길고 아름다운 허밍'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땀이다', '없다' 등의 서술어를 반복하고 있다.

③ (가)는 대화가 아니라 독백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36. [출제의도] 부사어를 고려하여 시적 의미 파악하기

㉞은 바다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움직임은 부각하는 부사어이다. 화자가 고래보다 앞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을 통해 화자가 고래의 꿈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을 통해 고래와의 만남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힘들더라도 불확정적인 미래에 가능할 것이라는 화자의 막연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을 통해 누군가가 고래의 존재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고래의 존재를 믿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을 통해 시간적 여유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여 주며, 화자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7. [출제의도] 의적 증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단이슬 먹고' 자란 존재는 '흰밥'이며, '외따른 산골'은 화자가 자라난 곳이다. '외따른 산골'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온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나)의 '진주의 계곡'과 '새 뿔집'은 고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장소로, 화자의 꿈이 실현된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흰밥'과 '가자미'를 의인화하여 무슨 이야기든 다 할 수 있는 관계로 여기며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②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은 것 같다'에서 부정적인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순수한 삶을 지향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③ '누군가가 '그런 커다란 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화자가 희망에 대한 불신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깨진 파도의 유리창'을 '갈아 끼우겠다'는 화자의 다짐은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전진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38~42] 독서(주제 통합)

<출전> (가) '카'의 역사관에 대한 이해(제구성) / (나) '언어로의 전환'이 역사학에 미친 영향(제구성)

개관: (가)는 '카(E.H. Carr)'의 역사관을 통해 역사가가 사실을 해석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카는 실증주의와 주관주의 역사학을 절충하여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로 정의함으로써, 역사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했다. 그는 사실을 '과거에 대한 사실', '역사상의 사실', '역사적 사실'로 구분하고,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을 인정하면서도 사실 왜곡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비판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역사학을 과거 기록의 복원을 넘어, 현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학문으로 재정의하였다.

(나)는 '언어로의 전환'이 역사학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고 있다. 소쉬르로 대표되는 기호학적 언어관에 따르면, 언어는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언어는 지시적 불투명성을 내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사료가 텍스트로 재개념화되면서 역사학의 연구 대상이 확장되었다. 또한 텍스트는 그 시대의 언어적 관례와 규범에 따라 작성되는데, 담론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생산하고 조직한다. 이 과정에서 담론은 특정 입장을 중심적인 가치로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권력 구조와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38.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는 '카'가 주장한 개념인 '과거에 대한 사실', '역사상의 사실', '역사적 사실'을 유형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나)는 '언어로의 전환'이 역사학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특정 역사가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조망하고 있지 않다. (나)는 특정 관점을 반박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특정 역사가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나)는 특정 관점의 장단점을 다양하게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특정 역사가의 주장이 변화해 온 과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나)는 특정 관점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그 절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9.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가)에서 '역사상의 사실'은 '과거에 대한 사실'이 역사가의 판단에 의해 승격된 것으로, 변화와 재해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특성을 띤다(2분단).

[오답풀이] ② (가)에서 '역사적 사실'은 '역사상의 사실'이 여러 역사가에 의해 역사적 중요성을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2분단).

③ (나)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개별적인 실체가 아닌, 실재를 포함한 부분적인 유사성을 표상한다고 주장한다. 실재의 완전한 표상은 가능할 수 없고, 언어는 실재를 완전히 투명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점에서 언어는 '지시적 불투명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2분단).

④ (나)에서 '언어로의 전환'에 따라 사료가 텍스트로 재개념화되면서, 역사학의 연구 대상이 전통적인 역사학 자료였던 문서뿐만 아니라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모든 대상으로 확장되었다. 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도 포괄적으로 확장되었다(3분단).

⑤ (나)에서 '담론'은 텍스트가 의미를 생산하고 조직하는 방식 내지는 규칙을 말하는데, 특정 입장을 중심적인 가치로 만들기도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맥락과 관련하여 다양한 권력 구조나 이데올로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4분단).

4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의 B는 역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역사가의 필수적 과제라고 보았다. (가)의 '카'는 역사가가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소거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역사가의 책임감과 상상적 이해를 강조한다(3분단). 따라서 역사가의 자아를 소거해야 한다는 입장은 <보기>의 B의 관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의 '카'와는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A는 저자가 부여한 절대적인 의미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독자의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 (가)의 '카'는 역사가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형성하는 존재로 보았다(1분단). 또한 역사가를 자신의 관점에 따라 특정 사실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 보았다(2분단). 따라서 모두 역사적 의미의 변화 가능성에 동의할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보기>의 A는 역사서를 '기의 없는 기표들의 단순한 조합'으로 보고 있으며, (나)의 비트겐슈타인은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언어가 개별적인 실재를 직접 표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분단). 따라서 모두 언어적 서술의 한계성에 동의할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보기>의 B는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역사학 연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가)의 콜링우드역사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오염되어 있어 과학적 객관성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3분단). 따라서 (가)의 콜링우드는 <보기>의 B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낼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보기>의 B는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나)의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며, 둘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한다고 보았다(2분단). 따라서 <보기>의 B의 주장에 대해 (나)의 소쉬르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낼 것이라 볼 수 있다.

4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카'는 '과거에 대한 사실'이 '역사상의 사실'로 승격되는 것은 오로지 역사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면서,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가는 '사실에 대한 지배자'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역사가는 객관적 사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지나친 주관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카'는 '과거에 대한 사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2.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⑥ '견지는'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킴.'의 의미이다.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의 의미는 '정의(定義)'에 해당한다.

[43~45] 문학(고전 소설)

<출전> 작자 미상, 「백봉선전」

개관: 이 작품은 백봉과 백선 형제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소설로, 가문의 위기와 국난의 극복 과정이 함께 그려진다. 백봉과 백선이 전쟁 도중 포로가 된 아버지 활수를 구출하는 이야기, 여러 영웅이 활약하며 호국을 물리치고 황제를 구하는 이야기 등이 나타나 있다.

4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부채로 산곡에서 번져오는 불길은 끈 것은 철남이 아니라 화룡 일행이다.

[오답풀이] ① 백봉과 대결하다 돌아온 호왕이 전쟁 포로인 활수에게 항복하라고 협박하지만 활수는 분노하며 거부한다.

③ 불길을 피하여 나온 존재는 철남이 아니라 초인이었다.

④ 황제는 적진 쪽 하늘에 불길이 가득한 것을 보고 전쟁에 나선 백봉과 백선이 철남과의 대결에서 죽었다고 생각한다.

⑤ 백봉은 운무 속에 갇힌 백선을 구하려 하지만, 운무 때문에 아군인 백선과 적인 신장을 구분하지 못한다.

44. [출제의도] 발화 의도 파악하기

[B]는 호왕의 잘못으로 황제가 진노했다고 지적하며, 호왕에게 붙잡고 있던 아버지 활수를 풀어줄 것과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는 문제 상황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지 않는다.

② [A]는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상대의 반박을 차단하지도 않는다.

③ [B]는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지 않고, 상대가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유도하지도 않는다.

⑤ [A]는 상대가 입을 피해를 언급하지 않고, 상대가 자신의 제안에 응하도록 설득하지도 않는다.

45. [출제의도] 의적 증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백봉은 호왕이 자신과 대결하던 중 후퇴하자, 계략이 있다고 생각하고 호왕을 쫓지 않고 본진으로 돌아오므로, 활수에게 향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백봉과 백선, 화룡이 호국파의 전쟁에 함께 나서 철남과 대결하는 것에서 여러 영웅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철남이 세 장수를 유인하고 황제가 있는 곳으로 향복하라 협박하는 것에서 적대자의 뛰어난 지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백봉과 백선이 적진에서 세자를 구출해 온 것과 철남의 위협을 받고 있던 황제를 구출하는 것에서 국난 극복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운무 속에서 위기를 겪는 백봉과 백선을 망월대사가 도와주는 것과, 철남이 전쟁에서 운무를 일으키는 신장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서 영웅과 적대자 모두 도움을 주는 존재가 각각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